

# 게임산업 새 성장동력으로 키운다

비대면시대 대표 산업으로 육성  
규제 장벽 낮추고 중기지원 확대  
e스포츠 활성화 등 게임문화 조성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개 달성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도 개선, 중소기업 지원 확대, e스포츠 활성화 등이 포함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뉴스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대표 비대면 산업 중 하나인 '게임'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e스포츠 활성화 등 게임 인식 개선은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게임산업에서 2024년 매출 19조 9000억 원, 수출 11조5000억 원을 달성하고, 일자리를 10만20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먼저 규제, 제도를 손질한다.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내용수정일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플랫폼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 등 급분류로 전환해 중복 심의를 막아 새 게임 유통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게임을 향유할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확충 예정인 정보공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대상 창업 지원 공간인 글로벌게임허브 센터를 '강소 게임기업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문화적 특성과 성공사례 등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에도 나선다.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 정의에 '게임'을 포함하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과몰입 대응 체계 개선 등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e스포츠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지역 상설 경기장을 거점으로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다양한 대회를 개최해 생활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1월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한국 주도의 국제적 표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그 밖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과 함께 게임문화 박물관, 게임테마파크 등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을 통한 산업 기반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현대카드의 M포인트 결제 이벤트. 사진제공 | 현대카드

## "카드 쓰면 할인이 짹!" 카드사 5월 이벤트 풍성

카드업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할인 이벤트에 나섰다. 롯데카드는 15~17일 롯데백화점에서 100만 원 이상 결제 시 5% 상당의 상품권 증정 행사를 연다. 또 13·20·27일 롯데슈퍼에서 6만 원 이상 결제 시 5%를 월 최대 1만 원까지 결제할 할인해준다. 신한카드는 8일까지 자체 온라인 직영몰인 올렛쇼핑에서 '건강케어 기획전'을 열고 건강식품 5%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현대카드는 M포인트 결제 이벤트를 마련했다. 10일까지 정관장에서 20만 원 이상 구매 시, 11~17일 LF몰에서 결제 금액의 50%를 M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외식업체 피자헛, 도미노피자, 파파존스에서 50% M포인트 결제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31일까지 10만 원 이상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가정의 달 럭키 데이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드 승인번호 뒤 4자리가 5월 주요 기념일인 근로자의날(0501), 어린이날(0505), 어버이날(0508), 스승의날(0515), 부부의날(0521)과 일치 시 자리 수에 따라 차등 캐시백을 제공한다. 또 KB국민카드는 31일까지 '목표 달성 캐시백 프로모션'을 열고,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이용금액 외 추가 결제 시 최대 5만 원 상당의 캐시백을 준다. 이밖에 삼성카드사는 31일까지 월요일 엔제리너스, 수요일 파파존스, 목요일 던킨도너츠에서 요일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 카카오 1분기 영업이익 882억...역대 최고

카카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

카카오는 1분기 매출 8684억 원, 영업이익 882억 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3%, 219% 증가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다. 커머스를 포함한 특비즈와 카카오페이 등 신사업, 콘텐츠 부문이 호실적을 이끌었다.

특비즈 매출은 신규 광고주 확대와 커머스의 견조한 성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증가한 2247억 원을 기록했고, 선물하기와 톡스토어, 메이커스 등 카카오커머스의 1분기 전체 거래액은 55% 늘었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8% 증가한 4266억 원이다.

김명근 기자

## 스타벅스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합니다"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 오픈  
중기부와 '자상한 기업' 협약  
올 1억원 이상 자금 적립 목표

스타벅스가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을 오픈하고 청년들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는 7일 스타벅스 성수역점에서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 오픈 기념식을 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자상한 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자상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

과 상생의 가치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발적 상생협력 프로젝트다.

스타벅스는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을 통한 수익금 및 스타벅스 매장 공간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최대의 청년창업네트워크 NGO인 프리즘,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단체인 (사)한국엑셀러레이터 협회와 함께 자상한 기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스타벅스의 '커뮤니티 스토어'는 매장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이다. 커뮤니티 스토어 1호점은 2014년 10월 오픈한 대학로점에

로, 고객이 구매하는 모든 품목당 300원을 적립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2020년 4월까지 약 5년 7개월 간 적립된 기금은 11억 원을 돌파했으며, 적립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위한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성수역점) 역시 고객 구매 시 품목당 300원의 기금을 적립한다. 이 기금은 향후 프리즘, 한국엑셀러레이터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창업문화지원 프로그램'에 사용하게 된다. 우선 올해는 1억 원 이상의 기금을 적립해 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스타벅스는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을 청년들의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허브로 삼고, 매년 20회 정도 청년 창업



전창렬 청년창업네트워크 프리즘 대표, 송호섭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대표이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준배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장(왼쪽부터)이 '자상한 기업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희망자들과 함께 하는 강연이나 세미나 등 창업 관련 행사를 지속 개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어버이날엔 가족 건강 챙겨요" 홀플러스 서울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건강박람회' 행사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홀플러스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13일까지 전국 점포와 온라인몰에서 '건강박람회'를 진행한다. 15개 브랜드 30여 종의 건강식품을 비롯해 실내 운동기구와 보양식 재료 등을 할인 판매한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홀플러스

## 큰 증상 없는 '지방간'...방치하면 위험

서구화된 식습관의 확산과 음주 문화로 인해 지방간이 국내 만성 간질환의 핵심 발생 기제로 부상했다. 지방간은 간에 중성지방이 5% 이상 축적된 상태를 일컫는다. 단순히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넘어 지방간이 지방간염으로 악화되면 이후 간세포가 괴사하고 염증 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까지 발전 가능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방간은 대부분 큰 증상을 자각하기 힘들다. 간은 통각 신경이 제대로 발달돼 있지 않아 '침묵의 장기'라 불린다. 간이 위치한 오른쪽 상복부가 빠스하거나 식욕부진, 무기력, 피로감이 심해지면 간 건강 이상이 의심된다. 지방간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검사와 간의 모양을 보는 초음파 검사 등이 필요하다. 특히 초음파 검사 등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간 조직 검사를 추가한다.

지방간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알콜성 지방간'과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약물과 관련된 '비알콜성 지방간'으로

나눌 수 있다. 알콜성 지방간은 만성적인 음주로 인해 유발되는 만큼 술을 끊으면 건강할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비알콜성 지방간은 비만, 당뇨, 나이, 콜레스테롤,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과식이나 과음할 경우 악화될 수 있다.

비알콜성 지방간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은 현재 없다. 따라서 치료의 핵심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한 체중 감량이다. 현재 체중의 5%만 감량해도 지방간은 개선된다고 알려져 있다.

지방간과 관련된 당뇨병, 비만, 관련 약제 등의 원인 인자들을 치료하며 최소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정도의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탄수화물과 과당 섭취를 줄이는 식습관 개선도 중요하다. 정기적인 초음파 검진을 통해 간 건강을 확인하는 것도 권장된다.

김상현 부천 내과 디병원원장



## 교육

### 에듀윌

입사촉진금 제도 운영

## 코로나19 여파로 신규채용 ↓...취준생 고충 늘어

코로나19의 여파로 각종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취업준비생들의 고충은 더욱 커져만 간다.

한국경제연구원원의 조사 결과, 대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을 위한 기회마저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취준생들은 가슴에 단비 찾아오듯 전해오는 채용 소식에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특히 채용 과정 중 면접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대중교통 사용은 물론 구비서류 발급, 사진 촬영, 의료 구입 등 면접과정에



서 지출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에듀윌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차부터 3차까지 이어지는 면접 과정에서 각각 5만 원, 10만 원, 10만 원의 면접비

를 지급하는 에듀윌은 이 외에도 새로 입사하는 직원들을 위해 입사 촉진금과 사이닝 보너스를 운영하고 있다.

입사 촉진금은 경력직 입사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사이닝 보너스는 경력직 입사자에게 연봉 외 최대 500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다.

에듀윌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채용 프로젝트와 복지 제도를 선보여 구직자와 재직자 모두에게 다니고 싶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